# 한국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김 종 서*

目 次

Ⅰ. 한국 근대 종교교육의 형성
Ⅱ. 일반 학교의 종교교육
Ⅲ. 종립 학교의 종교교육
Ⅳ. 한국 종교교육의 전망

## Ⅰ. 한국 근대 종교교육의 형성

한국 전통 사회의 교육은 대체로 불교와 유교를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속적 교육과 종교교육이 구분 없이 미분화 상태였다고도 할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근대 교육이 시작되는 것은 19세기 말 기독교가 들어와 학교들을 세우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타고 특히 1894년 갑오경장이후 <홍범 14조>에서 근대 교육의 수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이듬해 소학교들이 생겨나고 연이어 근대식 학교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쯤부터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이 종교로부터 분화되어 독립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물론 근대 교육이 시작되면서 전통적인 교육이 죄다 끝난 것은 아니다. 향교와 서원을 주축으로 하던 전통적 유교 교육은 대폭 변화되어 일부 향교만이 오늘날 그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또 강원과 선원을 주축으로 하던 전통적 불교 교육도 강원이 승가대학이나 교양불교대학 등으로 일부 형식적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종단 자체의 종교교육으로서 이들은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기독교의 신학교들도 일부는 신학대학 등으로 비록 공교육에 편입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종단 자체의 종교교육을 수

* 서울대 교수, 종교학

행하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대 교육이 종교에서 분화되어 독립 영역을 구축했다는 것은 세속적 학교가 이제 공교육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리고 근대식 학교들은 우선 <외국어>나 <수학>, <과학> 등 전통 교육기관과는 사뭇 다른 분화된 교과목을 가르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전통 교육에서 종교가 차지했던 내용들이 완전히 무의미해짐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근대적 공교육 속에도 <사회>, <윤리>, <역사> 등 다양한 일반 교과들 중에 종교적 내용들이 상당히 포함되었다. 특히 종립 학교들에서는 전교(傳敎) 및 수신(修身)의 목표와 맞물려 종교가 매우 적극적으로 교육되어 왔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은 크게 종단 자체의 교육과 공교육의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물론 후자 즉 근대 종교교육의 주축이 되어온 공교육 속에서의 종교교육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은 다시 일반 학교에서의 교육과 종립 학교에서의 교육으로 나누어 거론하는 것이 편리하다.

## Ⅱ. 일반 학교의 종교교육

광복이후 <헌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종교 관련 조항은 그대로다. 즉 현행 <헌법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성문화하고 있다. 근대 국가 헌법의 보편적 특징인 소위 '종교의 자유'와 '국교금지(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교금지(정교분리)와 관련하여 현행 하위법인 <교육기본법>에서는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1] 즉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국공립학교는 물론, 비종립 사립학교들까지

1) 이것은 종전의 <교육법 제5조>에서 "국립 혹은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었던 것이 2000년에 1월에 개정된 것이다. 여기서 사립 학교들인 이른바 종립 학교들에서의 종교교육은 심지어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조차도 금하도록 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교육기본법>은 종립 학교에 대해서는 전교 지향적 종교교육조차도 열어 놓고 있는 셈이다.

도 모든 종교교육은 금기시해야 한다는 것으로 종종 잘못 오해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상의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이란 개념은 엄밀히 말하자면 포교 등 종교활동으로서의 교육을 뜻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국공립학교에서까지도 인간의 문화적 현상이나 사회적 제도로서의 종교를 학문적이나 인성 교육적 차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실제로 초 중등학교의 <사회>와 <도덕> 그리고 고등학교의 <국사>, <사회와 문화>, <윤리> 등의 교과목 속에는 상당한 분량의 특정 종교들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종교자체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과의 일부로서 종교를 다루므로 매우 체계적이지 못하고 단편적인 내용들이다. 그리고 교과서들도 종교 전문가들이 집필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편파적이거나 심지어는 잘못된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한국은 종교가 아주 복잡한 나라다. 즉 세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교다원주의 국가인 셈이다. 그러므로 일반 학교의 종교교육과 연관하여서 타종교 및 종교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1980년대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의 종교관계 기술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근대 교육은 종종 서양식 교육을 의미해왔고, 그것은 당연히 서구 기독교적 배경들이 깔려왔다고도 하겠다. 이러한 기독교 편중 경향을 그 동안 오래도록 피해의식에 시달려 왔던 불교계가 강력한 비판을 하고 나섰다. 즉 기독교적 내용에 비해 불교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미약하다는 것, 그리고 과연 전통사상에 기독교도 포함시켜 교육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반면에 기독교 측의 전통종교에 대한 공격도 만만치는 않았다. 즉 한국 <교육법>(현행 <교육기본법>)의 기초 이념은 국조 단군에서 유래하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국수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상 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일부 근본주의적 기독교 측의 개정안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반대하는 민족종교들의 서명운동들도 대단하였다.

아주 최근에는 일부 민족종교가 초등학교들에 국조 단군상(檀君像)을 건립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자 이에 맞서 기독교계의 반발이 굉장했다. 민족종교 측은 종교적 신앙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국조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관심임을 강조하였고, 반면에 기독교 측에서는 일부 종교 단체의 교조선전을 위한 신앙활동으로서 <헌법>상 국교금지(정교분리) 원칙의 명백한 위

배라는 주장이었다.

## Ⅲ. 종립 학교의 종교교육

종립 학교는 종교단체들이 세우고 현재 운영을 맡고 있는 일종의 공교육 기관이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종립 학교의 총수는 약 400여 개 교다. 그중 불교계 종립 중 고등학교는 20여 개 교고, 기독교계 종립 중 고등학교는 270여 개 교다. 그리고 이런 종립 중 고등학교의 총 수는 전체 중 고등학교 수의 약 10%다.

종립 학교도 공교육 기관이므로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교과목들을 모두 가르친다. 그러나 본래 전교활동의 일부로서 설립된 셈이므로 동시에 정기적인 종교행사(예배와 미사 및 법회 등)나 종교관련 교과목을 대체로 주당 1시간 이상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하기가 일쑤다.[2] 즉 1970년대까지는 기독교계 종립 중 고등학교들은 <성경>이라는 교과목으로 운영해왔고, 불교계 종립 중 고등학교들은 <불교>라는 교과목으로 가르쳐 왔었다. 그러니까 중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개별 종립 학교들이 임의적으로 종교 교과목을 운영해 온 셈이었다.

이렇다 보니 실제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예컨대 종교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정식 교사 자격증을 가질 수가 없어서 교사처럼 불리긴 하지만 학교의 서무 직원으로 채용되고, 신분 보장이나 연금 혜택 등 정식 교사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 또 학생들도 정규 교과목이 아니므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종립 중 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파행적 실태를 개선하고, 일반 중 고등학교에 있어서까지 수신(修身)과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수용하고자 1980년대 초반부터 종교 교과목을 중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속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3] 그래서 결국 제4차 고등

---

2) 사실 이러한 의무적 부과는 (<교육기본법>상은 문제가 없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국공립학교만으로 교육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는 한국적 현실에서 사립인 종립 학교들이 나름대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서 종교교육을 강제적으로 부과함은 어느 정도 묵인되어 온 셈이었다.

3) 특히, '기독교교육연합회'를 중심으로 종교계와 종교계 언론들이 앞장서 종교교육의 합법화를 위한 여론이 조성되었다(윤이흠, '종교교육의 교육적 의미', 『여산 유병덕박

학교 교육과정(1982-1988, 문교부 고시 제442호, 1981. 12. 31)에 <논리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과 더불어 <종교>는 '자유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종교>[4]가 중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즉 종립 학교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들을 포함하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종교>를 보통교과의 정식 '자유선택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었다. 다만, '자유선택과목'으로 <종교>를 부과할 경우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할 것을 단서로 달고 있다.[5]

그러다가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1989-1994, 문교부 고시 제88-7호, 1988. 3. 31)부터 '자유선택과목'에서 '교양선택과목'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리고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1995-2001,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1992. 10. 31)과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2002-2007,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1997. 12. 30)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교양선택과목'으로는 <종교> 이외에도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교양선택과목'들은 4단위[6]까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4차 고등학교 교육과정부터 <종교>가 '자유선택과목'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종립 학교의 경우 엄밀히 말하자면 없던 교과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동안 가르쳐 오던 <성경>이나 <불교> 과목을 정규화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교사들이 정식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로 채워진다.[7] 하지만 기존의 종교 교사들을 일시에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로

---

사 화갑기념 한국철학종교사상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0, pp.937-938). 즉, 국가나 교육계가 아니라 종교계의 요구에 의하여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길이 열린 셈이다.

4) 여기서 교과목명이 <종교학>이 아니라 <종교>인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종교를 정규 교과목에 편입시키고자한 사람들의 관심이 순수 학문적 종교학이라기보다도 전교(傳敎) 내지 수신(修身) 및 인성 교육의 일부로서의 종교 자체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개정될 때마다 종교학적 시각을 확대해 나아가고자 하는 일부 시도들이 있었지만, 교과목명이 <종교학>으로 수정되지 않고 <종교>로 유지되는 한, 그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또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5) 이 조항은 그 이후 교과과정이 본격화되는 제6차 교육과정 때에도 그대로 포함된다(교육부, 『한문, 교련, 교양선택과목 교육 과정』, 1997, p.20). 이것은 아마도 <종교> 교과목이 강요되어 위헌시비가 있게 됨을 피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6) 1단위는 매주 50分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모두 바꿀 수는 없으므로 1년간 임시 집중연수 코스를 마련하여 3차에 걸쳐 약 300명쯤 되는 기존의 종교교사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종립 학교의 종교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된다는 것은 자율적인 종교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종교교육이 공교육의 성격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였다.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칭만 있던 <종교>과의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우선 <종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각 종단마다 각기 다른 자신의 특정 종교의 신행(信行)만을 가르치던 종전의 내용을 지양하여 모든 학생, 심지어는 일반 학교의 무종교인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교과내용을 개발해 내야했기 때문이었다. 당연히 보편적인 종교 이론과 종교 문화전통에 관한 내용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중심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개교 이래로 오래된 자체의 전교 지향적 종교교육을 하여온 긴 전통을 하루아침에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국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심각하게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의 내용체계가 성립되었다.

| 영역 | 내용 |
|---|---|
| 1. 인간과 종교 | 생활주변의 종교들<br>종교적 신념과 이해<br>궁극적 가치와의 만남<br>종교적 인격 형성 |
| 2. 세계 문화와 종교 | 유교, 불교, 도교, 크리스트교,<br>이슬람교, 힌두교의 전통과<br>사상 및 그 밖의 종교사상 |
| 3. 한국 문화와 종교 | 전통적인 민간 신앙 |

7) 종교 교사 자격증을 따려면 일정한 수의 종교와 교육학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종교사>, <비교종교학>, 및 <한국종교>의 세 과목은 필수과목으로 부과되어 왔다. 아주 최근에는 필수과목이 더 확대되어 <종교교육론>, <종교학개론>,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한국종교>, <종교사회학> 또는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세계종교> 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현대종교>, <종교와 과학>, <종교학사> 11과목 중 5과목을 이수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저급 신학교들에서 이러한 과목들에 적당한 교수요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예컨대 '종교사' 과목을 개설해 놓고 <교회사>를 하거나, <교회사> 과목을 <종교사>의 대체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 |
|---|---|
| | 유교, 불교, 도교의 수용 |
| |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의 수용 |
| | 한국의 민족 종교 |
| 4. 종교경험의 이해 | 신앙의 여러 관점 |
| | 종교의식과 종교적 실천 |
| | 종교적 공동 생활 |
| 5. 현대 사회와 종교 | 성스러운 문헌들의 현대적 의미 |
| | 종교와 세속 문화와의 만남 |
| | 다른 종교들 간의 대화 |
| | 종교와 사회의 이상 실현 |
| 6. 특정 종교의 교리와 역사 종교의 경전 | |
| | 종교의 교리 |
| | 종교의 역사 |
| | 일상생활 속에서의 종교적 생활 |
| | 종교와 내일의 한국 |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종교'와 내용체계>[8]

다시 말해서,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그 중 1, 4, 5영역은 종교 이론에 해당되고, 2, 3영역은 세계 및 한국 종교 문화 전통에 해당되며, 마지막 6장에서는 종전에 행해오던 자체의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9] 즉 공교육적 종교교육과 종단 자체의 종교교육이라는 이중적 교육이념이 절충된 셈이다. 이 두 가지 교육이념의 절충 문제는 이후로도 계속 고등학교 종교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생각되고 있다. 즉 종교

8) 한국 공교육에서 최초로 구체화된 정규 종교교육 교과과정인 이 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종교>과 내용체계는 필자가 초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와 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일부가 수정(특히 '제6장 특정 종교의 교리와 역사'가 추가됨)되어 교육부에서 확정하였다.

9)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내용체계가 곧 교과서의 장(章)이나 수업시간의 비중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로 이러한 내용 체계에 대하여 종립 학교들의 반발이 심각하였다. 기존의 전교 지향적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내용체계는 제시된 바와 같지만 실제 교과서나 수업의 편성은 융통성을 두는 것이 묵인되어 왔다. 따라서 제6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나온 교과서들의 내용은 종교학 이론 및 종교 문화 전통들에 대한 것이 30%~40%이고 자체의 특정 종교에 대한 것이 60%~70% 정도 되고 있다.

교육과정을 초안하는 사람들은 현재 일반 대학에서 학문으로서만 종교학을 하듯이 고등학교에서도 종단 자체의 전교 지향적 종교교육을 그만두고 학문적으로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종립 학교 종교교육의 현장에서는 학교 설립의 취지를 살려서 전교 지향적 종교교육을 어느 정도 병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1997년에 확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제7차 고등학교 종교 교육과정도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서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결국 확정되었다.[10] 그러나 점차 전교 지향적 성향이 약화되고 학문적 성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집필된 종교 교과서들은 심사를 거쳐 '인정 교과서'가 된다.[11] '인정' 심사는 지방 교육청의 소관 사항이다. 지방 교육청에서는 종교학 교수와 일선 중 고등학교 종교교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고하여 '인정' 권을 행사한다. 대체로 인정 심사에서 중시되는 것은 내용상의 오류와 타종교에 대한 비방과 왜곡된 기술 등을 바로 잡는 것이다.[12]

---

10) 정진홍 교수가 초안을 작성하고, 필자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교육부가 확정한 현행 제7차 고등학교 종교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 영역 | 내용 |
|---|---|
| 1. 인간과 종교 |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 해결,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종교의 의의와 역할 |
| 2. 종교 경험의 이해 |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경전과 종교 규범, 종교 의식과 종교적 실천 |
|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 종교 사상과 배경, 참된 것과 깨달음, 종교의 특성 이해 |
| 4. 세계 종교와 문화 | 유교와 도교,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와 기타 종교 |
|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 다양한 인간관, 종교적 인간관<br>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 |
| 6. 한국 종교와 문화 | 한국 불교와 문화, 한국 유교와 도교 문화<br>한국 크리스트교와 문화, 한국 무속 신앙과 민족 종교 |
| 7. 종교 공동체 |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종교의 사회적 기능, 종교간의 화해와 공존, 종교적 인격 형성 |
| 8.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 경전 교리 역사, 종교적 생활, 한국 종교와 문화 창조, 나의 종교 생활 설계 |

11) <국어>나 <국사> 교과서들이 '국정 교과서'들이고, <영어>나 <수학> 등의 필수과목 교과서들이 대개 '검정 교과서'인데 비해 선택과목이므로 '인정 교과서'인 셈이다.

그러나 종교 교과목이 중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속에 편입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한국의 모든 중 고등학생들에게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사실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이므로 종립 학교뿐만 아니라 비종립 사립학교와 심지어 국공립학교를 포함하는 일반 학교에서도 어디서나 교양선택과목으로 채택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학교에서 <종교>를 교양선택과목으로 채택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그 이유는 <종교>를 택하면 우선 원칙적으로 (앞서 언급되었듯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또 다른 교양선택과목을 더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교사 확보나 반 편성 등 번거로움이 많다는 것이다. 또 기존의 <종교> 교과서들은 대개 종단 배경을 가지고 집필된 것이므로 국공립학교 등 일반 학교에서는 채택하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독자적인 교과서를 개발할만한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종립 학교치고 <종교>를 교양선택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없다. 그런데 종립 학교들은 대체로 교양선택과목으로 <종교>만 개설할 뿐 다른 과목을 복수로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예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대개 다른 교양선택과목을 개설해도 학생들이 선택하지를 않는다는 구차한 변명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중 고등학교의 보편적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정규과목이지만 사실상 종립 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매우 특수적 교과목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중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을 대개 무시험 (통학거리 등을 위주로 한) 컴퓨터 임의배정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종교 신자도 일반 학교에 배정되는 반면에 무종교인도 종립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불교인이 기독교 학교에 배정되기도 하고, 가톨릭 신자가 불교 학교에 배정되기도 한다. 분명히 종교가 강요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물론 본인이 극구 반대하는 경우에는 종교행사나 종교수업에 불참해도 용인은 된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만 행동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이런

---

12) 필자는 10여 종의 <종교> 교과서를 위한 인정 심사에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심사 기간이 대개 충분하지 못하므로 교육과정에 충실하여 집필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밀하게 따지기는 어렵다. 또 아직도 전교 지향적 옛날 교과서의 잔재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이름도 단순히 '종교'라고들 쓰고 있지 않다. '종교 (기독교)' 또는 '종교 (불교)'라고들 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종교 일반 이론의 내용이 확대되고 교과서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목격한다. 물론 일부 교과서들이 인정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삭제, 수정, 보완 지시를 거쳐 통과시켜서 종단의 독자적 집필 의도를 존중해주고 있다.

맥락에서라도 <종교> 교과목은 종전의 종파적 전교 지향적 성격을 지양하여 비록 점진적으로라도 장차 더욱 학문적이고 수신(修身)과 인성 교육적 차원[13]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의 '종교적 센스 또는 정조(情操)'를 길러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사용할 만한 비 종파적 <종교> 교과서가 나와야 할 것이다.

## Ⅳ. 한국 종교교육의 전망

이상 간단히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은 비록 풀어야 할 난제들을 많이 안고 있으나 점차 확대 일로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몇 가지 덧붙여 보면, 우선 종단 차원의 다양한 종교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 특징은 강원과 선원 및 향교와 서원 그리고 신학교 중심의 종교전문인들을 위한 종교교육보다는 평신도들 중심의 교양불교대학, 전통 예절 강좌, 성서(聖書)대학들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14] 여기에는 그 동안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발달된 종교관계 매스컴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15] 비록 종단 차원의 종교교육이지만 이들의 확산은 분명히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의 내용과 질에도 점차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공교육의 일환으로서의 종교교육도 전반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직 일반 학교에서는 세속적 교과목의 일부에서만 종교가 취급되고, <종교>라는 교과목 자체는 종립 중 고등학교

---

13) 과연 이러한 수신(修身)과 인성 교육적 차원에서 종교교육이 현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는 또 다른 큰 문제다. 특히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종교교육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실제 경험적 조사들에 의하면 매우 신중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김종서, "학교 도덕교육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변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14/6 (1992): 20-27 참조.

14) 다만 이렇게 평신도를 위하여 시작된 교양불교대학이나 성서 신학원들이 전혀 교육부의 인가는 못 받은 무인가 교육기관이면서도 졸업생들에게 (공인 학위인 듯) 자체 종단 내에서만 통용되는 가짜 학위증들을 남발하여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 즉 국가 공인 학위제도를 오염시키고, 자격이 안 되는 성직자들을 배출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다.

15) 불과 20년 전만 해도 변변한 불교개론서가 없어서 기본 지식도 잘 못 갖추었던 불자들이 요즈음 불교방송의 교리상담 프로 등을 듣다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높은 불교 지식을 갖고 있는 것에 심지어 격세지감을 느끼게까지 된다.

에서만 국지적으로 교육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규 교육과정 속에 편입되어 일반 중 고등학교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열린 셈이다.

한편 일반 대학에서도 미국에서처럼[16] 종교학이 인문학의 일부로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국립 서울대학교에만 종교학과가 있었으나 그 후 서강대학교와 가톨릭대학교 등에 설립되었고, 종교철학과와 종교문화학과 등 유사학과들까지 합치면 꽤 여러 대학에 종교학 관련학과들이 생겼다. 교양과목으로서의 <종교학개론>이나 <세계종교> 등은 거의 모든 중요 대학교들에서 개설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심지어 순수 신학대학이나 불교대학 등에서도 종교학 관련과목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설강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근대화의 초기에는 과학적 합리적 지식에 대조되어 종교는 학문적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가 많았다. 특히 <헌법>상의 '국교금지(정교분리)' 조항은 종교문제에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것으로 종종 간주되어, 종교를 개인적 신앙문제 정도로 치부하고 국가적인 배려를 하지 않기가 일쑤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국교금지(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다원화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어느 특정 종교만을 지나치게 후원하는 이른바 국교화(establishment)로 인한 상대적인 다른 종교들에 대한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상기되어야 한다. 즉 오늘날처럼 종교다원주의가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사실상 국교화의 위험이 거의 없고, 오히려 지나친 정교의 분리가 종종 많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영적 복지(spiritual welfare)에 대한 무관심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정교분리의 원칙은 오늘날처럼 철저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는 사실상 무의미한 셈이다. 그러므로 정교분리 조항 때문에 종교교육을 공교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셈이다.[17]

실로 우리는 한국동란 이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아직도 빈부의 격차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 덕분에 상대적으로 이제는 후진국의 오명은 벗어난 셈이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정부는 이제 국민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

16) 미국 대학들에서 종교학의 성립과 전개에 대하여, 김종서, "미국인의 종교에 대한 지적 관심변화: 미국 종교학의 성립과 발달", 『미국학』, 20 (1997): 343-358 참조.

17) 김종서, "종교교육 실태분석 —종교교육의 이론적 체계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 종교사상의 제 문제 (VI)』, 1990, pp.241-269. 특히 정교분리의 원칙이 깨지면서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강화되어온 과정은 미국의 경우에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한 국민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들이 종교에 대한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영성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다.

특히 현대 한국사회에는 종교적 편견으로 인한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또 종교적 무지를 이용한 범죄들이 속출하고 있다.[18] 그러나 국민들은 이들에 거의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적 차원의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은 일정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현대 사회에서 사는데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꼭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국가는 일정한 교육을 의무로까지 국민들에게 부과하면서 넓은 의미의 국가를 위한 '인간적 자본(human capital)'으로 여기고 있다. 종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식되어야 한다. 즉 국민이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건강할 수 있게 해야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라면 결국 종교도 '국민적 자본'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이다.[19]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은 기존의 세속적 교육이 지닌 국민적 자본 가치에 더욱 성숙한 영적 복지이념까지가 새롭게 접목된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고차원의 국민적 자본 가치의 축적통로로서 한국 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다. 요컨대, 종교교육이 지닌 이러한 국가의 이념적 인프라로서의 성격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공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정교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논거다.

---

18) 실로 1930년대 백백교(白白敎) 사건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는 용화교(龍華敎), 동방교(東方敎) 및 오대양(五大洋) 집단사망 사건, 휴거(携擧)를 내세운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영생교(永生敎), 만민중앙교회(萬民中央敎會), 천존회(天尊會)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교관련 범죄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신종교들 뿐만이 아니라 기성종교들에서까지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가출, 의료 사기, 재산 갈취, 부녀자 성폭행 등 다양한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범죄수법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규모도 매우 확대되어 금전 등의 피해 등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종교 관련 범죄들에 당면하여 국민들이 기본적인 종교교육만 되어 있어도 피해는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여겨진다. 아무튼 이러한 종교관련 범죄와 종교교육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 또 다른 커다란 연구 테마를 초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9) 같은 책, pp.241-244.

# 참고문헌

교육부, 『한문, 교련, 교양선택과목 교육 과정』, 1997.

김종서, "종교교육 실태분석 — 종교교육의 이론적 체계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 종교사상의 제 문제(VI)』, 1990, pp.241-269.

김종서, "학교 도덕교육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변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14/6 (1992): 20-27.

김종서, "미국인의 종교에 대한 지적 관심변화: 미국 종교학의 성립과 발달," 『미국학』, 20 (1997): 343-358.

류성민, 『중 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개선방향 — 도덕교육에의 기여를 중심으로』, 경기도: 현대사회연구소, 1994.

윤이흠, '종교교육의 교육적 의미', 『여산 유병덕박사 화갑기념 한국철학종교사상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0, pp.935-942.

〈Abstract〉

# Issues and Vistas in Korean Religious Education

Kim, Chong-suh

Religious education in Korea has been mainly performed by religious orders themselves and secular schools. Again, there are two kinds of secular schools to offer religious curricular: public (non-parochial) schools and parochial schools.

The Basic Education Law articulates, "Government-established (public) schools should not give a religious education for a particular religion." However, this article is often misunderstood even as prohibition of religious education in parochial schools. And academic studies of religion do not matter with this article.

There are almost 400 parochial schools in Korea. Religion has been officially included in regular curricular of junior high schools and high schools since 1980s. It is the most important issue how the education for a particular religion can harmonize with the academic study of religion in parochial schools. Non-religious students are often forced to attend particular parochial schools in Korea. Thus it might be against the religious free-exercise article of the Constitution that non-religious students or the students of other religions are compelled to take the course for a particular religion.

Despite present problems, it is still necessary that students have chances to learn religious and spiritual sense for their life. In this context, religion might be thought of as a national capital for spiritual welfare of the people.